

2012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2012. 9. 17 제124호

박희석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III. 서울의 3/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V. 요약 및 시사점

부록: 2012년 3/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서울의 산업생산은 상승세이나 소비나 고용은 증가세 둔화

서울의 산업생산은 2012년 7월 전년동월대비 4.7%를 기록하며 플러스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1년 7월 산업생산이 -18.4%로 최저점을 기록한 기저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6개월간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며 2012년 7월 1.1%를 기록하는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은 4.5%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대형마트는 -3.2%로 감소하여 대형마트의 판매 감소가 내수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고용시정을 나타내는 취업자수 증가율은 최근 1년간 평균 0.5%로 고용시정의 개선이 미미하다. 한편,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의 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서울의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의 체감경기는 하락세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2년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7.2p 하락한 83.1로 나타났다. 2012년 2/4분기에 90.3으로 상승한 뒤 1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소비심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생활형편지수」와 「소비지출지수」도 하락세로 반전하여 서울시민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도 전분기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서울의 비제조업 부문의 「업황실적지수」는 제조업 부문보다 크게 하락하여 비제조업 분야의 경기가 더욱 어려워짐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기업의 주요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매출, 내수, 제품재고 등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경제의 회복을 위해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대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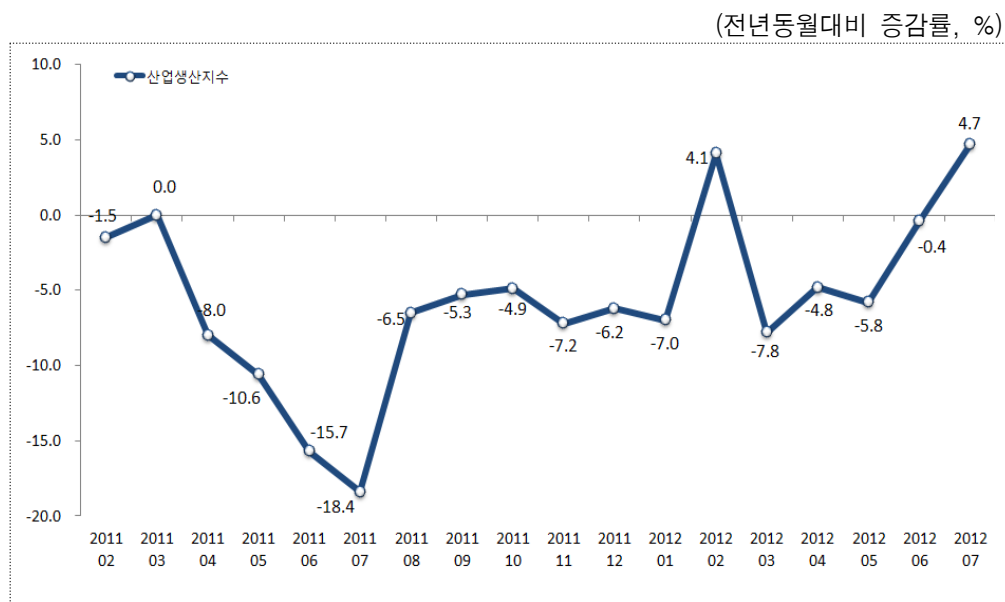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용창출, 내수시장 활성화, 물가안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에 정책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상승 등 물가상승이 명절을 앞둔 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 및 도시에 특화된 중소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보호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강화해야 한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서울의 산업생산은 상승세, 소비나 고용은 증가세 둔화

□ 산업생산은 4개월 만에 플러스 상승세로 반전

- 서울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2012년 7월 전년동월대비 4.7%로 연속 상승기조 유지
- 자본재 및 중간재, 소비재 생산도 상승세로 2012년 7월에 각각 8.0%, 5.7%, 3.7% 증가율 기록
- 『산업생산지수』의 증가는 자본재 생산의 급격한 상승과 2011년 7월 -18.4%를 기록한 기저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1년 이상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플러스 성장세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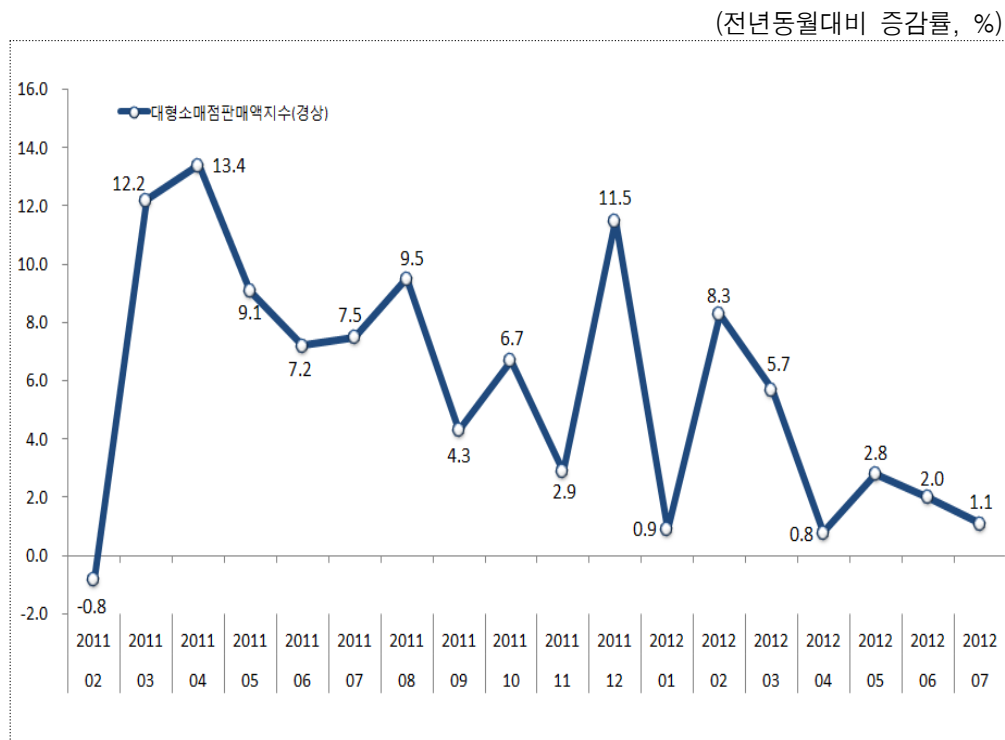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 대형소매점 판매의 증가율은 감소세 지속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2년 7월 전년동월 대비 1.1%로 소폭 성장
-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지수」는 4.5%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3.2% 감소하여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 최근 3개월간 「대형마트 판매액지수」의 감소는 2012년 4월말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전반적으로 서울의 내수 성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향후 내수 정체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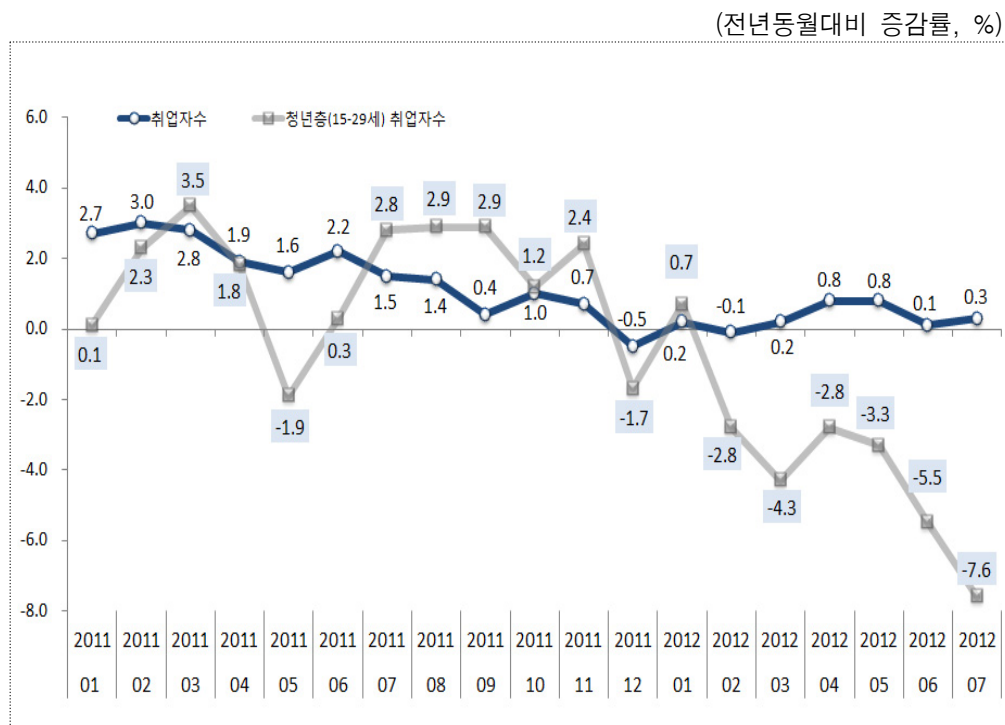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 서울의 「취업자수」 증가는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수」는 계속 감소

- 2012년 7월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한 5,102천명
- 2012년 6월의 총 「취업자수」 증가율 0.1%보다 0.2%p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에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분석
- 2012년 7월 서울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7.6% 감소한 931천명
- 2012년 1월 이후 서울의 총 취업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어 서울의 고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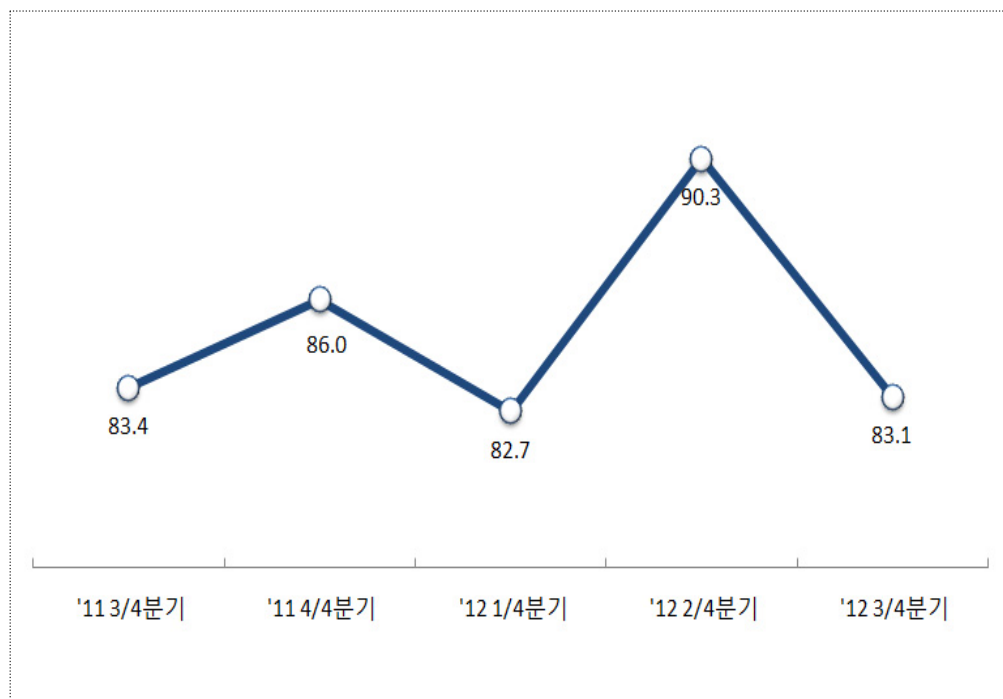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 서울의 취업자수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소비자 체감경기 위축,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1분기 만에 하락세로 반전하여 소비심리는 다시 위축
 - 2012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83.1로 전분기 대비 7.2p 하락하여 1/4분기 수준으로 복귀
 - 2012년 1/4분기 82.7에서 2/4분기 90.3으로 크게 상승한 뒤 불과 1분기 만에 하락세로 반전
 -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으로 서울 시민의 소비심리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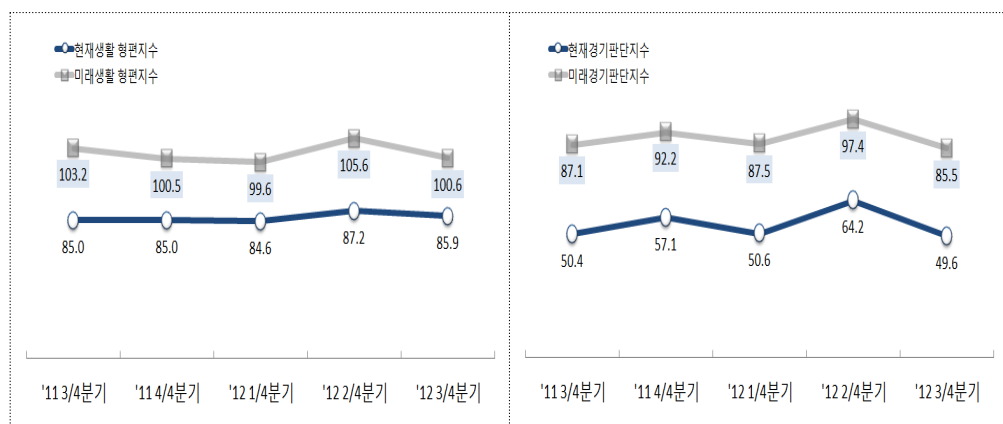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현재와 1분기 이후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

- 2012년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1.3p 하락한 85.9, 「미래생활형편지수」는 5.0p 하락한 100.6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의 2011년 3/4분기 이후 평균이 85.5임을 고려하면 현재 생활형편의 큰 개선은 없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도 100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어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개선도 불투명

□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도 하락하여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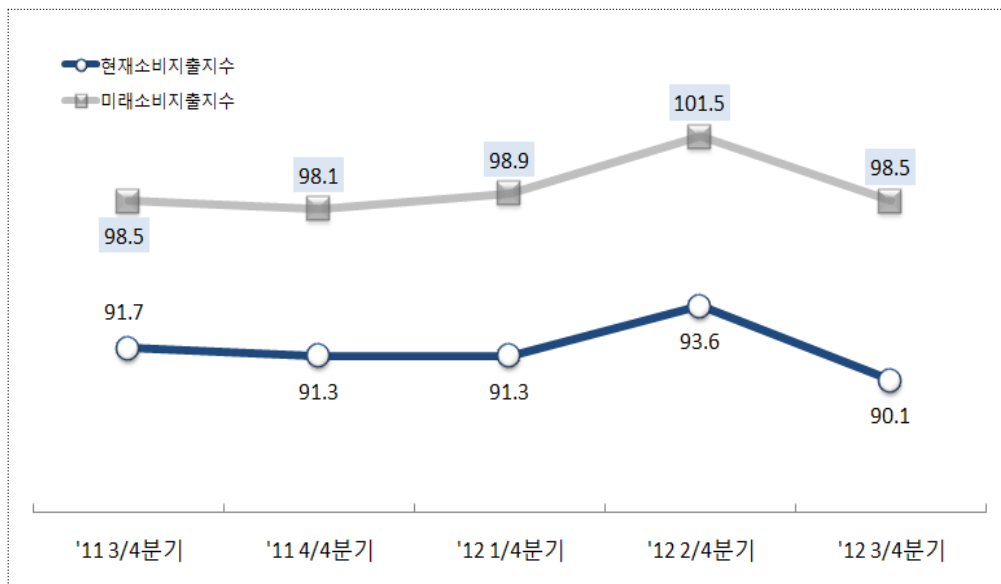
- 2012년 3/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 대비 14.6p 하락한 49.6,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 대비 11.9p 하락한 85.5를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2년 2/4분기 64.2로 전분기 대비 13.6p 급격히 상승한 뒤 1분기 만에 하락세로 반전
- 최근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 등 대내외적 불안정 요인으로 현재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전망 시사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와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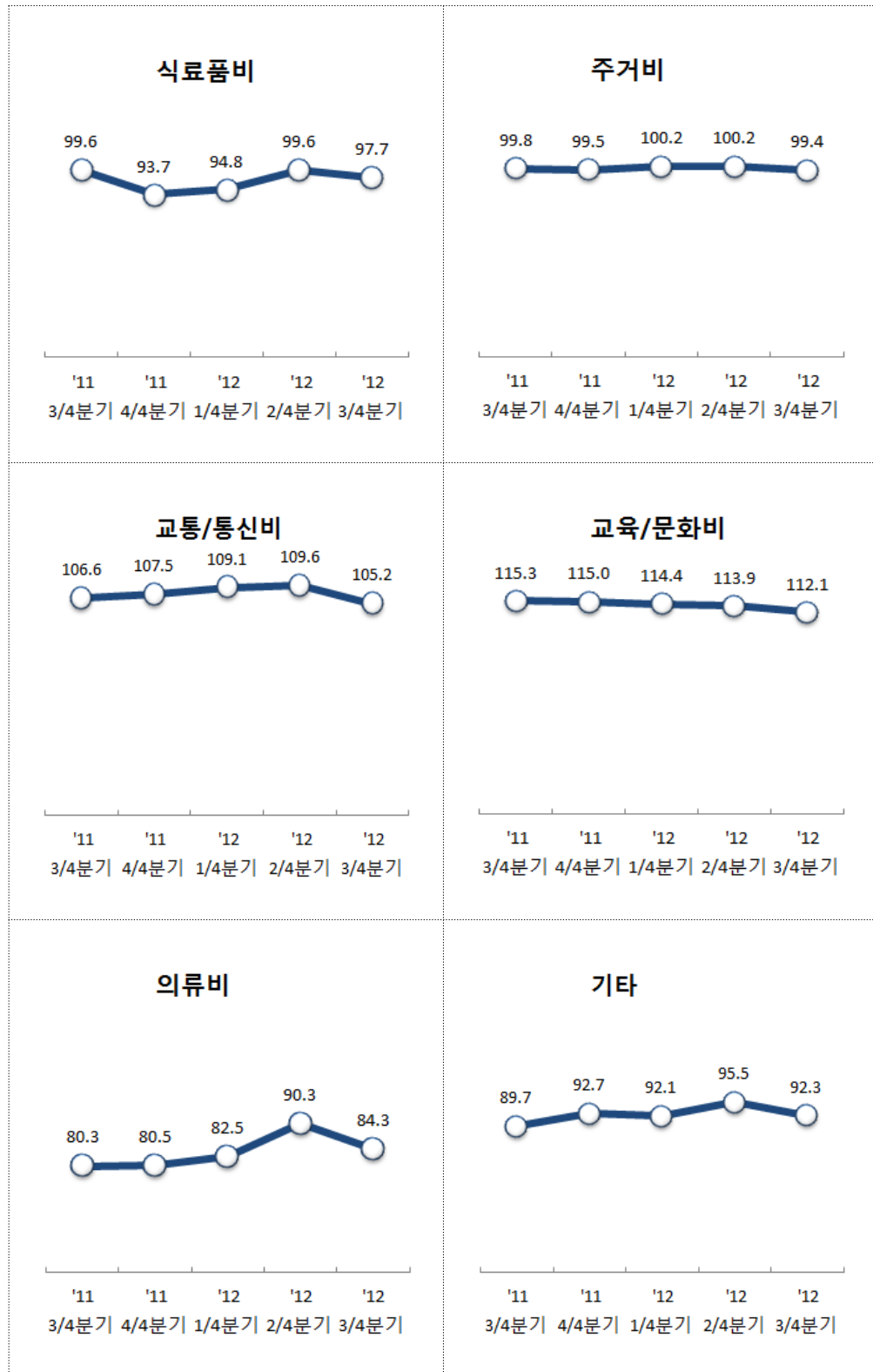
소비지출 감소, 고용상황 위축 등 서울의 내수 하락

- 서울의 내수를 대표하는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가 위축
 - 2011년 3/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12년 3/4분기에 각각 3.5p, 3.0p 감소한 90.1, 98.5로 하락세로 반전
 - 대내외적 경제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른 내수 침체로 향후 소비지출의 개선도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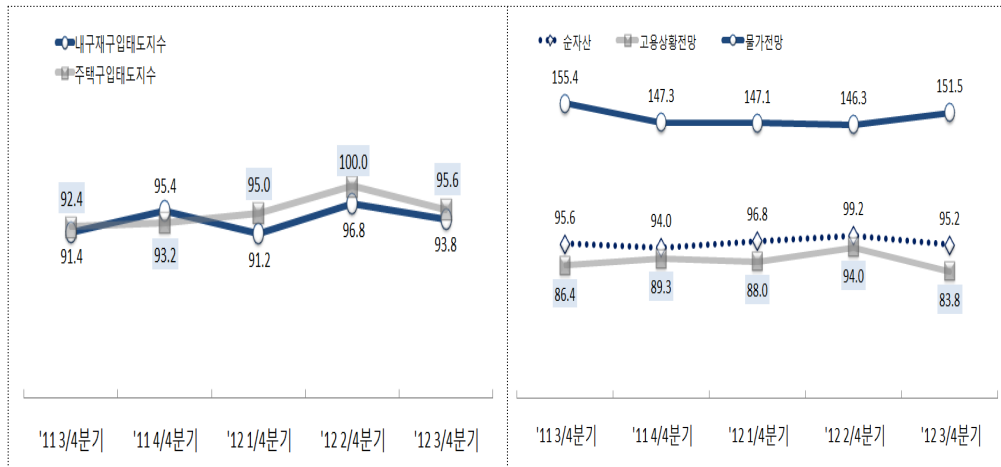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모든 품목에서 전분기 대비 지수 하락
 - '교육/문화비(112.1)', '교통/통신비(105.2)'는 전분기 대비 1.8p, 4.4p 하락하였으나 기준치(100) 이상을 상회하여 소비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특히, '의류비(84.3)'는 전분기 대비 6.0p 감소한 84.3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그림 7]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도 전분기 대비 감소
 - 2012년 3/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3.0p 하락한 93.8,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4.4p 하락한 95.6
 - 체감경기 악화로 내구재 소비와 주택 구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 서울의 물가 불안 심리는 다시 상승, 고용상황과 가계 순자산은 위축
 - 2012년 3/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 대비 5.2p 상승한 151.5로 4분기 만에 물가 불안 심리 고조
 - 2012년 3/4분기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95.2, 83.8로 전분기 대비 4.0p, 10.2p 하락
 - 고용상황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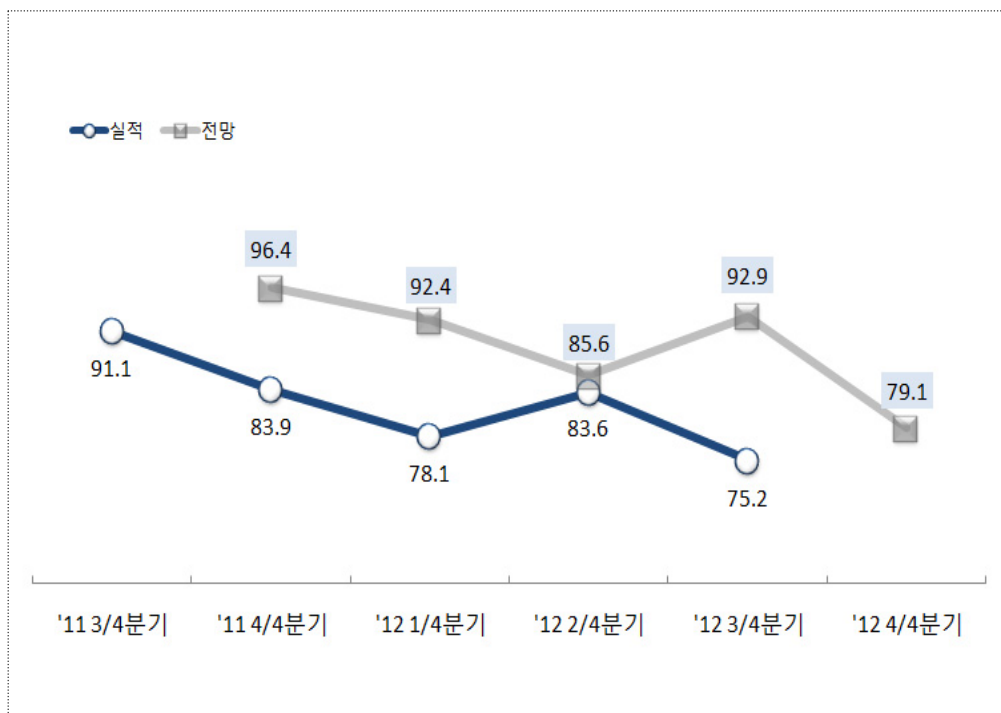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내구재,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Ⅲ. 서울의 3/4분기 기업 체감경기

현재와 향후의 기업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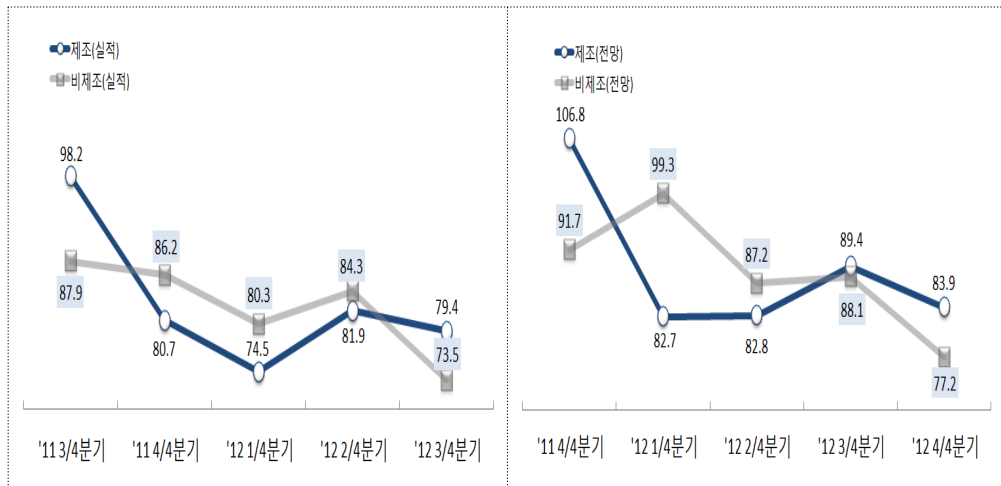
- 업황실적 및 전망지수가 모두 하락하여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가 비관적임을 시사
 - 서울의 2012년 3/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8.4p 하락한 75.2,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13.8p 하락한 79.1을 기록
 -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는 각각 2009년 1/4분기, 2009년 2/4분기 이후 최저값을 기록
 - 2/4분기 회복세를 보였던 경기가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의 상존으로 다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그림 9] 서울의 업황지수

□ 비제조업의 체감경기는 제조업보다 큰 폭으로 하락

- 2012년 3/4분기 「제조업 업황실적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2.5p, 10.8p 하락하여 79.4, 73.5를 기록
- 「제조업 업황전망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 모두 전분기 대비 각각 5.5p, 10.9p 하락한 83.9, 77.2로 비제조업의 경기가 더 비관적
- 서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 악화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 부진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



[그림 10]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 서울소재 기업의 설비투자규모와 종사자수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경영 지표도 악화

- 「제품재고지수」와 「매출지수」, 「내수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14.0p, 9.1p, 8.3p 하락한 93.1, 78.5, 78.9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감소
- 반면에 「종사자수지수」는 기준치를 상회하는 100.9를 기록하여 신규채용에 여력이 미흡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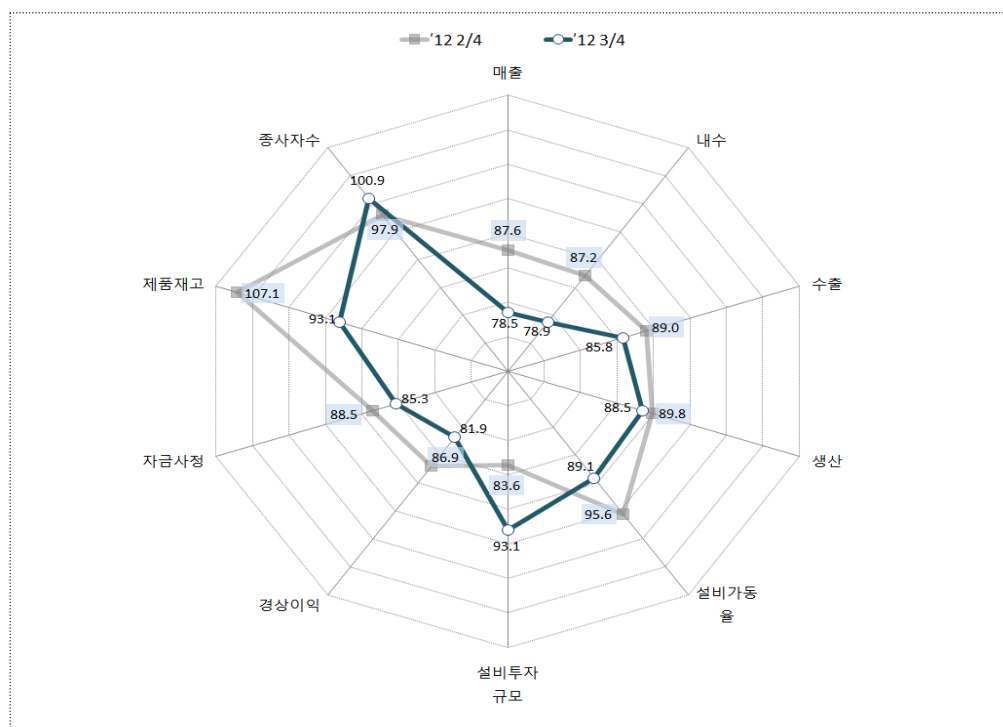
-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내수부진, 국내 수요의 변동 폭 확대 등의 요인이 기업경영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

□ 대부분의 지수가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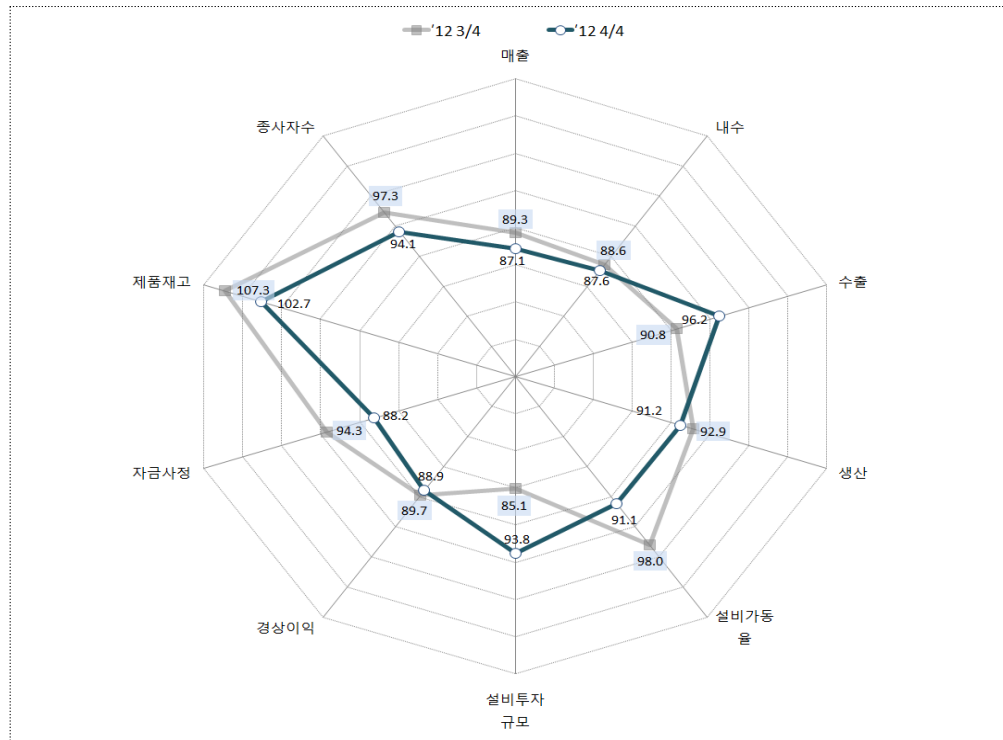
- 2012년 4/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은 「설비투자규모전망지수」와 「수출전망지수」에서 전분기 대비 8.7p, 5.4p 증가하였으나 각각 93.8, 96.2를 기록

-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기업 체감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 명절 등 계절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미국 등의 3대 경제권역의 경기 침체로 기업경영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그림 11]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그림 12]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Ⅳ. 요약 및 시사점

소비자 및 기업의 체감경기 하락세로 향후 서울경제 회복은 불투명

-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은 증가하나 내수와 고용은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
 - 제조업의 산업생산은 증가하였으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과 고용은 감소세로 민간 소비와 고용 여건은 악화
 - 산업생산은 2012년 7월 전년동월대비 4.7%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 마이너스 성장세에 따른 기저현상으로 분석
 - 대형소매점 판매액과 취업자수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1%, 0.3%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은 큰 개선이 없을 전망
-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비자 체감경기는 다시 하락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83.1로 전분기 대비 7.2p 하락하여 1/4분기 수준으로 복귀
 - 2/4분기 상승세로 반전한 뒤 1분기 만에 하락세로 조사되어 소비자 체감경기 심리가 단기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 하락세 반전으로 경기 회복은 난망
 -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8.4p 하락한 75.2를 기록
 - 특히,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전분기 대비 10.8p 하락한 73.5를 기록

서울경제의 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고용창출 대책이 필요

☐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을 기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의 여건 조성

-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희망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회 제공
- 직업 훈련이나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운영 등 고용 여건 제도의 보완
- '청년창업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사업' 등 체계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을 고려하여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
- '서울특별시 물가정보망'의 관리·감독 강화와 홍보를 통해 물가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의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덜어주는 등의 물가 안정 대책 마련

☐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육성을 강화

-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
- 중소기업 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강화'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 도심에 특화된 중소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보호 프로그램 일관되게 추진

박희석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 2012년 3/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1년 3/4분기	83.4	85.0	103.2	50.4	87.1	91.4	92.4
2011년 4/4분기	86.0	85.0	100.5	57.1	92.2	95.4	93.2
2012년 1/4분기	82.7	84.6	99.6	50.6	87.5	91.2	95.0
2012년 2/4분기	90.3	87.2	105.6	64.2	97.4	96.8	100.0
2012년 3/4분기	83.1	85.9	100.6	49.6	85.5	93.8	95.6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1년 3/4분기	91.7	98.5	95.6	86.4	155.4
2011년 4/4분기	91.3	98.1	94.0	89.3	147.3
2012년 1/4분기	91.3	98.9	96.8	88.0	147.1
2012년 2/4분기	93.6	101.5	99.2	94.0	146.3
2012년 3/4분기	90.1	98.5	95.2	83.8	151.5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2012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2012년 3/4분기	2012년 4/4분기
매출	95.8	89.5	88.3	87.6	78.5	98.1	91.7	96.9	89.3	87.1
내수	95.6	90.5	89.6	87.2	78.9	97.7	93.0	98.5	88.6	87.6
수출	111.1	87.3	84.1	89.0	85.8	111.1	88.9	92.4	90.8	96.2
생산	107.9	88.2	82.7	89.8	88.5	107.2	89.2	86.8	92.9	91.2
설비가동률	101.9	88.7	89.6	95.6	89.1	105.7	91.7	89.4	98.0	91.1
설비투자규모	107.2	86.5	90.2	83.6	93.1	107.5	87.4	90.7	85.1	93.8
경상이익	92.9	90.0	86.4	86.9	81.9	95.9	92.3	95.1	89.7	88.9
자금사정	87.7	93.2	89.5	88.5	85.3	89.9	95.1	92.8	94.3	88.2
제품재고	101.6	101.5	101.3	107.1	93.1	98.6	100.9	103.2	107.3	102.7
종사자수	94.8	92.2	92.8	97.9	100.9	95.0	94.1	92.5	97.3	94.1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2년 3/4분기 조사 시점은 2012년 8월 중순).